



잠 못 드는 밤의 숲으로

깜깜한 밤, 작은 꿈은 반짝이는 별을 만나러 가요.



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

뒤척뒤척 이불을 굴러도 두 눈이 여전히 말뚱말뚱해요.



조용한 숲길을 걸어요

발걸음마다 촉촉한 이끼가 바스락 부드럽게 밟혀요.



언덕 위에서 별을 찾아요

탁 트인 밤하늘 가득 다정한 별들이 쏟아져 내려요.



하나 둘 세다 보니 스르륵

밤하늘 별을 차례차례 헤아릴수록 눈꺼풀이 무거워져요.



별빛 이불 덮고 꿈나라로

숲이 부르는 부드러운 자장가 속에서 깊은 잠에 들어요.